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 마태복음 16장 13-20절

Tag: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16:13-20)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영생을 얻는 구원이 복음의 목적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와 부활은 죄사함과 칭의의 유일한 복음이 되고, 오늘 말씀대로 교회는 복음의 핵심이다.

교회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신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표현되어 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의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 하신 말씀이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

예수님께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물어 보셨다.

넌지시 건네는 물음이었지만, 사실은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내기 위한 물음이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자칭하시는 이유를 교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스스로를 인류의 대표로 여기셨기 때문이다. 아담이 최초의 인류의 대표가 되었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자신을 지칭하실 때는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언급하실 때에나, 하나님을 언급하실 때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다. 즉, 자신이 현재는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있지만, 사실은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 표현은 ‘인자’라는 표현보다 더 많이 사용하셨다.(100회 이상)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셨다.

14 이르되 더리는 세레 요한, 더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세레요한;세레요한이 부활하여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추측하였다.(주로 세속적인 해석)

-엘리야;엘리야는 이미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약속이 있다.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자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5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4:5)

-그러나 이 말씀은 세례요한에게서 성취되었다.

14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 11:14)

10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마17:10)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마17:11)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도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마17:12)

-또는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시는 분.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위기로 봐서는 ‘네, 저희는 주께서는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니면, ‘네 주님이 바로 오시리라 하신 엘리야 이십니다.’ 아니면, ‘네 주님은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위대한 선지자 이십니다.’ 라고 해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까지 베드로가 한 언행 중에 이 말이 가장 칭찬받는 말이 되었다. 그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는 제자가 된

셈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이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17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히;바르 요하나) 요한의 아들. 오늘 말씀하실 때 굳이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표현은 혈육과 관계된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는 네 육신의 아버지가 네게 가르치신게 아니라는 뜻이다.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소문을 듣고 네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무언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네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네가 받고 믿고 선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을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물론 성령으로)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11:27)

-이 말씀대로 해석해 본다면,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가 임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왜 이토록 칭찬받을만한 고백이었을까?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실은 조각 조각 그동안 성경에 여러차례 등장했었다.

주님, 그리스도(메시아, 다윗의 자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이처럼 한 문장 안에 이 개념들을 모두 넣어서 고백하기는

처음이다. 또한 베드로는 **신앙고백적**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혹시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요(아니면 말고)’

아니면 탐구형식을 취하지 않으셨다. ‘메시아 이신 것은 확실한거 같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번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etc.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의도적으로 정체성만을 강조해서 가르치시려 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사실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7:21)

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마10:32)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12:50)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마15:13)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자신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 왜냐면 그래야 그의 고백이 단순히 지식의 수준이나, 카더라 통신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신앙고백이 되며 선포가 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복이 되고, 권세가 되고, 승리가 되기 때문이다.

신앙고백의 조건; 1. 목사님께서 답을 미리 주시고 문답하면서 배운 대로 하게 되는 고백(요리 문답서식 고백) -아니다.

2. 교회에 와서는 교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 관행이고, 만약 다른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나를 가

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저들이 원하는 말을 해 주는 것-아니다.

3. 사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아니나, 딱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 내가 믿어주는 셈치고 말하는 것-아니다.

4. 나는 잘 모르고 확신도 없지만, 목사님께서 저렇게 강력하게 설교하시니, 말대접 해야 하겠다. 저 목사님은 많이 아시는 것 같으니 나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셨겠지. 또는 나는 예수를 잘 모르나 내가 경험하기로 저 목사는 신실하시고, 박식하시고, 신령하시니 내 판단보다 어 훌륭한 판단을 하실 것이고, 결코 거짓말을 전하시는 분은 아니니, 나는 그저 무임승차 하는 셈치고 믿는다고 말하자-아직은 덜 된 밥이나, 불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음.

5. 비록 나에게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과 경험밖에는 없으나, 그러나 내가 들은 바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처음이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 같고, 내가 후회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으며, 심지어 내가 이 고백으로 손해를 당하게 되더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니 나는 자신있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 -진짜 신앙고백.

여러 가지 신앙고백 중 왜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인가?

몇 가지 복음을 나열 해 보자.

1.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3.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죄인이 되어 성령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게 되었다. (복음이기 보다는 복음을 위한 상황설명)
4.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5.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으며, 죽은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다.

6. 예수님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러 재림하신다.

7.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마침내 교회가 시작되었다.

8.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온다.

이 여러 가지 복음의 말씀중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구세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이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신앙고백이 터져나오도록 기획하셨고,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 주셨다.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고백의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선포하셨다.

카톨릭은 신앙 전승의 담지자로서 베드로와 그 후예들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복과 권세와 능력을 수여하셨다고 믿는 것이고, 개신교는 그 신앙전통을 이어받은 성직자와 그를 따르는 교회에 하늘의 복과 권세와 능력을 계승하도록 하셨다고 믿는다.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그러므로 덩그러니 예배당은 교회의 겉 모습이고, 진짜 교회란 신앙고백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

엇이든지 매고 푸는 능력을 지닌 교회가 진짜 교회일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